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1차)

개최일시	2025. 1. 7(화) 14:00~20:00	회의장소	본관 대회의실																																				
참석자 (12명)	김수민(경영대학 공동대표), 도재형(기획처장), 반지민(학부 총학생회장), 백은미(학생처장), 석지우(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송수진(학부 부총학생회장), 왕혜정(관리처장), 윤정원(한영회계법인), 이다연(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이명휘(교무처장), 이주연(예산팀장), 정덕유(총무처장)																																						
불참자 (1명)	서유리(대학원학생회장)																																						
안건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3)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의결 4)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의결 5)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6)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의결사항	<p>[안건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024추경</th> <th>2024예산</th> <th>예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4,603</td> <td>4,384</td> <td>219</td> </tr> <tr> <td>지출</td> <td>4,603</td> <td>4,384</td> <td>219</td> </tr> </tbody> </table> <p>[별도 안건] 안건 속행의 건: 승인 아래의 1차 등심위 안건을 2차 등심위에 속행하여 심의·의결함.</p> <p>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3.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4. 기금용도 변경(안)</p> <p>[안건 5]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024추경</th> <th>2024예산</th> <th>예산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8,124</td> <td>7,275</td> <td>849</td> </tr> <tr> <td>지출</td> <td>8,124</td> <td>7,275</td> <td>849</td> </tr> </tbody> </table> <p>[안건 6]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승인 (단위: 억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2025예산</th> <th>2024추경</th> <th>추경 대비 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수입</td> <td>9,019</td> <td>8,124</td> <td>896</td> </tr> <tr> <td>지출</td> <td>9,019</td> <td>8,124</td> <td>896</td> </tr> </tbody> </table>			구분	2024추경	2024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4,603	4,384	219	지출	4,603	4,384	219	구분	2024추경	2024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8,124	7,275	849	지출	8,124	7,275	849	구분	2025예산	2024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9,019	8,124	896	지출	9,019	8,124	896
구분	2024추경	2024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4,603	4,384	219																																				
지출	4,603	4,384	219																																				
구분	2024추경	2024예산	예산 대비 증감																																				
수입	8,124	7,275	849																																				
지출	8,124	7,275	849																																				
구분	2025예산	2024추경	추경 대비 증감																																				
수입	9,019	8,124	896																																				
지출	9,019	8,124	896																																				

<p>내 용</p>	<p>■ 개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처장이 위원장 선출을 제안하며 교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다. 위원 전원 동의로 교무처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다. - 위원장의 제안으로 위원장 이하 각 위원이 돌아가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다. - 위원장이 회의 녹음 절차 및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금일 회의 녹음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다. 참석위원 전원이 녹음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의 녹음을 개시하다. - 위원장이 다음 등록금심의위원회 일정에 대해 안내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차 회의가 1차 회의 다음 날 잡힌 것에 대해 너무 연이은 개최이므로 연기가 가능한지, 촉박하게 일정이 잡힌 경위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책정 관련 1월 중순에 등록금 납부를 시작하므로 그 전에 등록금이 책정되어야 하고, 총학생회 결선 투표 등으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 점 등의 사유로 촉박하게 일정이 정해진 사유를 설명하다. 학생위원 임기가 1월 시작이고 등록금 납부가 1월 중순이라 매년 동일하고,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024년 12월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관했을 때도 대학원 책정안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하셨었고, 다른 학교는 1월 말까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는 왜 이른 시점에 진행해야 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원 충원율과 우수한 대학원생을 빨리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며 더 늦은 학교도, 더 이른 학교도 있어 등록일정은 학교마다 전략적으로 정해짐을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매년 더 늦은 일정을 요청 드리는 건 예산안에 대해 학생 의견을 수합해야 함을 설명하고 학생위원 측에서 일정을 제시할 수 없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당초예산은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기간 내 유동적인 예산안이며, 학생 요구안을 협의체 등을 통해 전달을 받으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을 하게 되고, 어차피 며칠 안에 요구안을 모두 논의하고 예산안에 반영하기는 어려우므로 다양한 의견을 수합한 후 요구안으로 알려주기
------------	---

원

반 7

회

이

회

2

를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처를 통해 정기 협의체에 참석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협의체에서는 예산이 없어 결정권이 없다는 답을 많이 하기에 예산이 결정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할 수 밖에 없으며, 그럼 결산 등록금심의위원회 진행시 학생요구안을 논의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4월에 결산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있을 예정이고 그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한 회의 진행 전 예산팀장에게 회의록 작성 일정 안내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은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로 공개해야 함을 말하며 회의록 작성일정을 설명하고, 본인 발언에 한해 수정할 수 있음을 고지하다.

- 위원장이 예산팀장에게 회의록 서명 관련 안내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록 확인 서명 시 전원 자필 서명과 더불어 대표위원 3인의 간서명 필요성을 설명하고 위원장에게 호선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위원장과 교직원위원을 대표하여 기획처장, 학생위원을 대표하여 학부 총학생회장을 회의록 간서명 대표위원 3인으로 호선하고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다.

- 위원장이 총 재적위원 13명의 위원 중 참석위원 12명으로 과반수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라 함)를 개최하다.

■ 회의내용

1.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3. 등록금회계 잉여금처리 원칙 의결
4. 기금용도 변경(안) 심의·의결
5.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6. 2025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예산(안) 심의·의결

- 위원장이 교비회계 예산 전체 보고 이후 질의응답 진행을 제안하고,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의 발언이 4월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뜻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안건이 아니더라도 발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를 바라며, 흥익대는 학교측에서 논의 안건 발의하고 학생측과 학생요구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가진다고 발언하고, 우리 학교는 매번 학생요구안에 대해 여유롭게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후속 협의체나 4월 등심위에서 질의응답 할 시간이나 세션을 별도로 요청드린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작년에도 비슷하게 진행하였고 예산팀장 답변과 같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는건 어렵지만 현 교직원위원 임기 종료 후 다음 교직원위원이 위촉된 후 4월 등심위에서 학생 요구안을 논의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학생처 협의체에서 논의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4월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이라고 믿으며, 학부 총학생회장 언급과 같이 회의 일정이 촉박하고 1,2차 등심위 일정이 하루 차이인 점 등 등심위 구조 관련해 논의할 수 있는 등심위가 2024년 3차 등심위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2025년 4월 등심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우리는 연구중심대학이며 학부 교육 못지않게 대학원 교육도 중요하고 우수한 대학원생을 선점하고 싶은 욕심이 있으며, 행정적 이유로 대학원 신입생 등록일자를 바꾸기는 어렵고 대학원 관련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신입생 등록일자를 앞당겼을 때 수치적, 질적인 차이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 입시 일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들이 맞물려서 짜여져 있으므로 전략적 접근 뿐 아니라 행정 업무상으로도 세팅된 날짜를 바꾸는 것도 쉽지 않으므로 이 자리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전에는 며칠의 차이를 두고 1,2차 등심위가 정해졌었는데 하루 차이는 너무 큰 부담이며, 만약 하루 차이의 등심위에서 갑자기 등록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데 기획처장의 의견이 다음 처장단의 의견과도 동일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의 회의는 위원들간의 회의인 것이며, 이 내용은 후임 위원에게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오늘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도 남는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라는게 학생과 학교측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등록금이 책정되는 것이며 이에 부합하려면 충분한 논의 시간이 보장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싶고 다른 학교 사례처럼 수차례 회의를 통한 협의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할 때 부담이 되어도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등심위가 등록금 납부 일정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동결로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한 후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방법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12월 등심위에서 외국인 등록금 책정 심의를 별도로 심의했는데 단위별로 책정이 가능한거면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먼저 진행한 후 학부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12월이 부담인 것은 학생위원 임기의 마지막 시기이므로 1월 등심위에서 진행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했었던 바이고, 등록금 관련해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생요구안 관련 다른 등심위에서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발언하고, 대학원과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를 따로 진행하는 것도 내년 정도부터는 바뀌는 걸 기대해도 되겠냐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우수한 대학원생을 뽑기 위해 여러 방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등심위 일정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납부 일정 변경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겠지만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답은 못한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번에도 일정을 3개를 전달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4월 등심위에서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내년부터라도 1,2차 일정을 띄우는게 가능한건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답하고, 학생위원은 논의 시간의 부족으로 안전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아는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회의를 하고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측 위원과 학생측 위원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합의를 하기에는 매번 2시간 전에 회의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임기 시작 직후라 더욱 어려움이 있으며 학생요구안에 대해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학생위원측의 반대를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장애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며, 지금까지 상황상 결과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어와서 안타깝다는 뜻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팀장의 발언을 이해하며 사전 질의응답 등 학교측의 배려도 알고 있으나 매번 일정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 학교측의 노력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회의자료는 개최 2~3시간 전부터 열람이 가능한데 자료 열람을 촉박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사전열람 관련해서 요청을 하면 당일에 한해 미리 준비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번에 사전열람 시간을 12시~2시로 1차 안내하고 요청이 있으면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요청이 없었고 오늘 당일에 요청해서 11시부터 진행을 하였는데 장소 등 준비를 해야 하고 행정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요청을 하면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사전열람은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등심위를 개최하고 있는데 법령상 등심위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지체없이 제공'이라는 문구도 있으므로 자료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는 공정한 심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발언하며, 매년 요구를 해도 2시간이 원칙처럼 정해진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2시간이 원칙은 아니고 사전 열람을 그렇게 안내하는 것 뿐이고 필요하면 더 진행을 할 수 있으며, 예산안이 방대하고 보기가 쉽지 않아 질문을 하면 답하려고 했는데 그런 면이 부족하였다면 다음에는 사전에 요청하면 반영하겠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1월 2일에 사전 자료를 요청하였고 원칙을 얘기한 건 최소 2,3일 전에는 제공받고 싶은데 매번 당일에 제공하니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회의자료를 3일 이상 요청하면 그에 맞게 열람이나 송부가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당일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왜 당일인지 모르겠으며 내용을 보려면 1주일
은 족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회의자료를 파악한 후 논의하는 자리이고 양측
이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데 당일은 부족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 발언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검토가 아니라 자료 제공 시점도 2~3일
전 요구할 수 있고 메일 송부도 가능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지
속하는 이유를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팀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간단해 보이지만 작성하는
데 오래 걸리고 각 처마다 나눠져 있는 일들도 있다 보니 예산팀이 일상적인
업무와 등심위 준비를 하면서 자료 준비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고 하며, 저번 등심위에서 예산팀장에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아침부터 자료를
회의장에 둘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오늘은 회의장에서 다른 회의가 있어 자료
를 세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아침부터 제공하는 것으로 해 보겠으며, 제
공 날짜를 며칠 전으로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매번 업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등심위가 중요한
업무인데 매번 회의 일정이 촉박하고 자료 제공이 어려우면 왜 회의를 일찍 잡
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검토하신다고 하니 알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내일 2차 등심위인데 예년처럼 사전열람 없
다고 보긴 했는데 내일 아침부터 사전열람 가능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내일은 등록금 책정안 심의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이지,
따로 자료가 있는 회의는 아니라고 답변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이번에 5일 전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
는데 원칙상 1주일 이내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 있어 저희도 촉박하게 자료 요청
을 한 부분이 있는데 입학처 등 학교에 업무가 많다고 들었으므로 앞으로 저희
도 미리 자료 요청을 하겠으며, 서울대/연세대/고려대/한국외대 등 전자 메일
로 자료를 제공하는 학교들이 많고 2,3일전부터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대학들
이 많고 일반적이므로 투명성/효율성/기록 관리를 위해 서면이 아닌 메일 송부
를 요청한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2024학년도 교비회계 추경예산(안), 2025학년도 교비회

계 예산(안)에 대해 수입 및 지출의 증감요인을 덧붙여 상세히 보고하다.

- 위원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과 기금용도 변경(안)에 대해 보고를 요청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회계잉여금처리원칙과 기금용도 변경(안)에 대해 보고하다.

- 위원장이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응답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소속별 교원현황표를 요청을 했는데 채용계획이 어디에 얼마나 있었고 임용축소가 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다.

- 교무처장(위원장)이 각 단과대학에서 195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 65개 분야 진행을 하였으나, 각 단계별 불발로 최종 46명이 채용될 예정이며, 추가수요를 확인하여 진행을 하였음에도 지원자의 퀄리티나 또는 급여/처우의 문제로 채용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무용과 전임교원 부족으로 대자보까지 붙였는데 현황표상 1명만 채용된 것에 대해 왜 그런건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위원장)이 2명 채용되었고 무용과에서 심사 진행하면서 적격인원이 없어 굳이 채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공지능대학이 전임교원이 부족해 보이는데 채용이 되는지 질의하다.

- 교무처장(위원장)이 4명 채용되고 채용절차가 계속 될 예정이며, 인공지능대학 쪽의 경우 급여가 기업에 비해 1/4밖에 되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그 기준 중 하나로 호크마교양대학의 글로벌학부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글로벌학부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될 여지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인센티브는 2024학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이미 사용하였고, 기금인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내년 대학혁신지원비의 경우 어떻게 배정될지 알 수 없어 불확실성이 높음을 발언하고, 학교가 투자를 하면서 신산업 교원 채용 등을 해나가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발언하다.

- 교무처장(위원장)이 이미 계약 중 포기하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으며, 신규 채용에 대한 급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원금보존기금의 지속적 인출 상황을 설명하며 등록금의 경우 2025학년도 외국인 학생 증가, 의대 복학 가정 등 증액 편성하였고 큰 사업비 투입이 없음에도 원금보존기금을 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늘리기는 어렵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대 복학을 예상한 근거가 있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편성시 휴학 가정이 보수적이긴 하지만 복학을 가정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복학 가정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금보존기금에서 또 133억원을 인출해야 하는 상황임을 발언하다.

- 위원장이 원금을 보존해야하는데 원금이 줄어드는거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그렇다고 답하고, 원금보존기금은 이자를 사용하는 기금인데 원금을 쓴다는 것은 원금의 미래 이자 수익까지 감안시 몇 배를 인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기금이 많아 보이지만 학교 운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은 내년에 201억원 밖에 남지 않아 현재처럼 인출시 곧 인출이 불가능해진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의 어려움은 이해한다고 발언하다.

- 총무처장이 예산팀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직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써 정규직/계약직의 채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을 정도로 타 대학 대비 낮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예산이 2억 증액되어 이 부분이 충분할지 의문이어서 고민을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교원은 티오가 있어도 채용이 안되고 직원은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해서 임시직으로 운영을 많이 하다보니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게 사실이며,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은 필요시 일부 추경에 반영을 하겠지만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이 늘어야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재정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고 2025학년도 의대 복학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복학 가능성이 낮아 예산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다.

반

반

장규

이

영

수

- 예산팀장이 의대 관련해 최근 상황을 파악 중인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대 비대위와 연락시 올해는 복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예산 편성 시점이 12월이었고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의대 휴학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반영한 수준에서 복학을 가정하였으며, 의대 등록금 수입이 없다면 내년 예산을 더욱 감액하여 집행을 줄여야 한다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관리처의 현황을 공유하며, 학생 요구안의 많은 부분인 시설개선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한데 현재 시설관리비에서 노후 시설 관리와 냉난방 시설 개선 등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해 보이며, 학교의 노후 시설 현황은 20년 이상된 시설이 62%에 달해 관련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냉난방기도 사용 연수를 초과 사용해 효율이 떨어져 특히 여름철에는 에너지 등 각종 민원으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며, 공공요금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예산으로는 각 건물의 유지,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추가 예산이 필요함을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각 부서의 어려움에 공감하나 예산안 의결을 진행하여야 이사회 심의 진행 및 정상적으로 추경 및 2025학년도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발언하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학도 그동안 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왔다고 말하다. 그러나 교원 채용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획처장으로서 등록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예산안 의결 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나누어 내일 등심위에서 대학원 등록금을 먼저 논의한 후 학부 등록금에 대해서는 다시 등심위를 진행하여 인상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의견을 요청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동결로 이해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갑자기 인상은 곤란하며,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에서 학교가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하고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3차 등심위를 개최하여 학부 등록금을 재논의 하자고 하였는데 왜 예산 부족이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연결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 부족을 기금을 사용하여 해결해 왔으나 이제 운영수지 부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거의 소진되었고 학교가 연구중심대학으로써 생존하기 위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며, 기금이나 전입금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런 취지로 고민하면서 학부 등록금도 새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민

5기

86

반

이

2

- 학부 총학생회장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며, 우리 학교는 이미 등록금이 높은 상황이고 다른 학교는 인상시 학생들과 미리 논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발언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법인이든 기금이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자리에서 인상을 얘기하는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처장들이 예산 부족을 언급했던 것이 등록금 인상을 위한게 아닌가 싶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의대 휴학 여부는 큰 문제이며, 이 예산으로는 내년 운영이 어려우니 다시 논의하자고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발언하며, 서강대 등 타 대학들이 인상을 결정하거나 논의 중인 상황이며, 현재 긴축으로 편성한 예산에서 의대 휴학시 도저히 방법이 없고, 학부 등록금 책정 시기가 빠르다는 지적도 있었으니 기획처장이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대 상황이 학교 내 공유가 안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작년에도 교육부가 복학을 여러 차례 언급하다가 뒤늦게 휴학을 승인하여 의대 관련하여 이미 실행된 집행이 많았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정상화를 기대하고 편성하였으며, 교무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발언도 있었지만 대학평의회에서 임금 관련 지적이 많았고 신규 채용을 못하는 상황에서 올해까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싶었으나 의대 휴학 진행은 결정적인 사안이며, 무선랜 등 학생 요구사항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경비를 절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학생위원이 보기에 미흡할 수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적극적 편성에 한계가 있어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일 등록금 동결안을 진행할 예정인데 갑자기 등록금 인상을 제시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정확한 수치 등 내용 없이 인상안 제시는 곤란하며, 등록금이 50%의 재정을 총당하는 상황에서 다른 수익을 늘리지 않고 학생들과 논의와 합의 없이 갑자기 인상을 제시하면 어떻게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수치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3차 등심위에서 논의하기 바란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위원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고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외부 전문가 위원이 2009년부터 등록금 동결을 해오고 있고 지금 물가지수가 30%는 인상된 것으로 하는데 작년 등심위 참석시 2000년대 초반 기금에 비해 기금이 반으로 줄어 크게 늘렸으며, 이번 예산안도 지속가능한 예산

민

공격

186

반 ;

01

22

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학생위원이 보기에 다른 수익이 아닌 등록금을 인상하려는지 이해 안 될 수 있지만 학교 수익원이 뻥하고 기부금, 국고사업, 병원 전출금 등 모두 노력을 하여도 단시간에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배들이 적립한 기금으로만 버티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기획처장이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하였는데 연구비는 100억원밖에 되지 않고 교원 채용도 어렵다면 어떻게 연구중심대학이 되고 대학순위가 올라갈 수 있을지 졸업생으로써 걱정된다고 발언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는 정말 한계에 온 상황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다. 다만 학생 입장에서 갑자기 인상을 제시하면 큰 충격이고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며,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논의를 하는게 맞고 이런 식의 논의는 무리가 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등록금 동결을 해도 전체 대학 중 높은 등록금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학교가 어려운 점에 대해 학교는 재원이 있거나, 없으면 어떻게 늘려갈지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발언하고, 학생위원들도 타 대학 사례 참고를 하는데 등록금이 낮으면서 운영이 되는 학교를 참고하여 수입을 늘릴 생각은 없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부 등록금 인상을 내일 결정하자고 한 것은 아니고 자료 준비를 하고 사용처를 마련해서 설명할 것이며, 학교가 수입 관련해서 어떻게 보안을 할지는 십수년간 진행을 해 온 부분이고 ECC 임대사업도 교육부가 얘기한 수익사업이지만 초창기와 달리 지금은 외부업체가 많이 임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오래된 건물이 많아 관리운영비도 많이 소요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예산안을 각 부서와 오래 고민하고 총장의 승인도 받은 안일텐데, 동결안을 먼저 보낸 다음 인상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예산안을 볼 때 유지보수 비용이 부족하고 냉난방비 부족 등은 학생들도 충분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발전기금을 건축기금으로 이관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해동AI스퀘어 등 도서관이 개선되고 있는데 헬렌관 자리에 도서관이 세워지는 것, 도서관 기금이 따로 있는 것 모두 의문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금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등록금을 인상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관련 매년 많은 고민을 하고 작년 대학원, 외국인 인상에 이어 올해도 진행 중인데 학부 인상은 끝까지 억제하고자 하였으나 한계 상황이며, 국고보조금도 최대한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등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 왔으나 도저히 힘든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회의 중 갑자기 그렇게 되었냐고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회의 자료를 5일 전 송부한 후 학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예산팀은 올해까지만 버텨보려 하였으나, 그럼에도 한계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었으며, 당장 내일 인상안을 의결할 수는 없으므로 별도의 등심위를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인상안에 동의할 수 없으며, 원안인 동결안으로 가져가야 하고, 이에 별도의 등심위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생위원들도 학생요구안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을 제시하였고 구조 관련 주장도 공감에 되는 부분이 있으며 기획처장의 제안도 있었으니 내일은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논의하고 학부 등록금과 학생 요구안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관리처장, 총무처장 등 발언 후 갑자기 등록금 인상을 제시하는 것과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같이 진행하다가 갑자기 따로 진행하자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처장들의 의견을 요청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처 또한 다른 처와 마찬가지로 소속 부서의 인력 충원 문제를 겪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학교 차원에서는 원금보존기금이 인출되고 있으므로 그런 맥락에서 기획처장이 제안한 것으로 이해하며, 학교 입장과 학생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관리처장이 관리처에서 학교 시설들을 점검하여 노후 시설 문제에 대해 인지하게 되었고, 특히 조형관 등에 작년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합의한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시설관리비가 재건축 위주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 노후 시설, 냉난방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추가 금액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외부 전문가 위원이 현재와 같은 예산안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공감하며, 학부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총무처장이 앞서 언급한 직원 채용 문제 외에 복지 또한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며 교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처장들은 학부 등록금 인상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법인 전입금이나 기부금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인상안의 근거로 제정이 부족하다는 건 추상적으로 보이고,

최종안으로 미리 말을 해줬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법인 전입금이 우리 학교는 24 추경 2.02%, 25 당초 2.21%에 불과한데 국내 사립대학 평균적으로 4.1% 수준이므로 우리의 법인 기여도가 많이 부족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하고, 기부금 역시 기부 전담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 고려대는 700-800억원 수준의 기부를 받고 있으니 기부 전담 부서의 다양한 기부 확대 방안을 진행한 후 등록금 인상을 제시하기를 바라며, 학교가 낡고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절감할 수 있는 곳도 많은 것 같으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는 타 학교들의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적립금 관련 혹시 학생의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변환되는지 질의하고 그게 아님을 파악한 후,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인상을 논의하는 게 적절하며 등록금 인상이 의대 휴학 영향인 것인지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 2025년 첫 대면에서 안건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변경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와서 모든 위원이 혼란스러운 것 같으며, 다만 고민 끝에 이번까지 동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임을 이해 부탁드리며, 짧은 시간에 다양한 재원 관련 검토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감사하고 그런 조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학교의 재정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기부금의 경우 대외협력처라는 전담 부서가 있고 처장과 직원들 뿐 아니라 총장까지 각종 행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의 기부금은 다수의 동창 개인이 소액 기부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세대/고려대의 경우는 거액의 기관 기부금이 많다고 차이점을 설명하고, 그러한 기부금이 늘어나기도 어렵고 기업들의 자체 재단 설립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그동안 등심위에서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학교가 기부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게 동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회의 중 갑자기 안을 바꾸는 핵심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위원장에게 내일 논의할 안건을 바꾸는게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은 내일 진행하고 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다시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다.

- 기획처장이 인공지능, 데이터사이언스 등 첨단분야에 우수 교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학교가 비용절감형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는 학생 요구

안이든 각 처의 요청이든 받아들일 수가 없기에 학교가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반영하지 못한 요청들에 대해서는 수치로는 나올 수가 없고 인상을 한다면 각 처와 학생들과 논의를 통해 사용처를 정해야 하는 것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상안을 제시한 건 아니라고 언급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대학평의원회에서도 동결로 보고된 것으로 하는데 바뀌어도 되는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대학평의원회는 자문 기구이며, 당시 대평의장이 높은 관리비에 대해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답변하다.

- 예산팀장이 대학평의원회 안건 역시 상황적으로 인상이 맞음에도 올해까지 동결을 해보자는 맥락은 같았으나 현재는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 인상을 반대하는 마음은 알지만 학교가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상황이라면 인상액에 따른 수익을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되길 바라므로 당장 다음 회의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싶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논의와 별개로 한계 상황이어서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인상안과 학생 요구안 논의시 학교 운영도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안건 자체가 회의 도중 변경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 요구안 중 가장 중요한 게 등록금 인상 반대인 것이며, 혹시 재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새로 준비한 것을 제시해 주거나, 학생들과 인상안에 대해 사전에 논의하는 등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1주일 뒤에 회의를 진행하면 학생위원이 할 수 있는게 많지 않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재정상황은 학생위원도 이해를 할 거라 생각하고 요구안 등 논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그렇다고 여기며, 여기 학생위원 6명이 반대해도 의결을 하면 가결이 될 수 있고 그 전에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자리 자체가 없으므로,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등록금 인상을 검토라고 해 볼 수 있으며 당장 다음 주 인상 의결은 절대 불가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인상만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법인 관계자, 기부 관계 부서 등 모든 분들과 논의하는 자리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을 논의하는 곳이 등록금심의위원회이며 언급한 부분을 협의체 등에서 논의할 수는 있지만 등심위에서 여러 조직들과 논의를 모

두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인데 이 자리에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의 수요 관련하여 작년에 진행한 사업들을 생각해 보면 학생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이러한 과정 자체가 학생 의견을 들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 보이고, 학생위원측은 동결안을 고수하고자 하는데 학교측은 인상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인상 관련하여 각 부서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에서도 법인전입금, 기부금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법인 관련 열람자료를 보면 법인 수익사업인 임대 수입을 설치학교에 전출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확대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학교가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수 교원 확보와 기자재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타 대학의 경우 등록금 인상 합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다. 덧붙여, 우리 학교의 경우 해당 재원을 기금인출로만 충당해 왔으나 이 또한 지속가능한 방법은 아니므로 학부 등록금 인상을 통해 인력, 기자재, 환경적인 부분에 투자하여 교육과 연구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완하여 설명하다.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하며, 학생 요구안은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전년도 무선랜 사업 추진과 같이 학교가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학생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기 위해 언급한 부분임을 부연 설명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을 인상하자고 하였는데 올려도 별 다를 게 없으면 말이 안 맞는 게 아닌가라고 발언하고, 왜 그러한 부분을 등록금을 올려 충당하려는지 이해되지 않고,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우선 순위로 해야 하는데 왜 학생들 등록금을 올려서 연구지원을 늘리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들리지 않는다고 발언하고, 이러한 상황을 위해 기금을 쌓은 것 같은데 왜 현재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안을 제시하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가장 나약한 단위에 대한 억압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우리는 세계적인 경쟁 속에 있는 것이며 그 중 여자대학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 대학인 것이고 평범한 대학이 아닌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그게 등록금 인상의 합리적인 이유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왜 투자가 필요하고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중심대학, 세계적인 경쟁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 말씀대로면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대학이고 앞으로를 위해 탄탄한 수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를 떠나게 될 개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은 학교 재정의 큰 부분이며 학교에서 추가 수익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계속 노력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당장 필요한 투자재원 부족분에 대하여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 재원으로 학교가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다.

- 예산팀장이 부속병원 관계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는 중이니 오늘의 안건을 의결을 진행하고 등록금 책정 관련은 그 이후 추가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의결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계속해서 등록금 책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예산안 관련 논의는 진행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의결을 진행하는 건 생산적이지 않다고 보이며, 추경 예산안 의결 후 논의를 추가로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부속병원 안건 의결 이후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 포함 오늘의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한 후 내일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을 재개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교비회계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예산팀장이 교비회계 2025학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긴축예산으로 편성은 하였지만,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2025학년도 예산(안)은 이후 추경예산시 고려하여 반영하겠다고 언급하다.
- 위원장이 교비회계의 2025학년도 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총무처장, 관리처장이 현 예산안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하였는데 왜 지금은 찬성을 하는지 질의하다.
- 관리처장이 일단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 추경예산에 반영한다는 예산팀장의 발언에 따라 찬성하였다고 답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행정이 심의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1월 2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가 되어도 되고, 등록금이 결정되면 그에 맞게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을 주장하다.
- 예산팀장이 추경과 당초예산은 법인이사회를 앞두고 있으며, 많은 부서에서 추경예산 집행을 위해 등심위와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어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언급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행정시스템은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일 텐데 흥익대는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예산안과 등록금채정을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이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 조건이 고려되지 않은 이와 같은 예산안은 찬성할 수 없으며 비민주적인 과정과 구조라고 발언하다.

민

반 :

33/

이

8-6

2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심위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 등록금을 인상하더라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신뢰할텐데 행정 처리가 중요하다고 의결을 진행하거나 안건을 바꾸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하다.

- 기획처장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2025학년도 예산(안)은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관행상 등록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고 편성해 왔었던 것이며, 만약 3차 등심위가 열리면 각 부서, 학생위원과 논의하여 반영하겠다는 의도였다고 발언하고, 이번 등심위의 큰 의미는 학부, 대학원 등록금을 나누어 등심위를 개최하고 등심위에서 학생요구안을 듣고 반영하겠다는 언급은 처음인 것 같으며 다른 학교 사례를 들었듯이 우리 학교도 시작을 해보겠다는 의도임을 발언하고, 다만 어수선하게 진행된 부분은 사과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학생위원 측의 문제제기는 구조상 문제이며, 법인, 의대, 학생들과의 논의를 진행한 후에 등심위를 진행하고 싶고,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대표의 의미가 없는 등심위는 진행되어도 의미가 없으므로 합의가 어렵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구조 관련하여 2년간 등심위를 진행하며 학생위원이 제기하는 요구안을 소홀히 한 적이 없으며, 학교 수입과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학생에게 가장 먼저 배정하려고 노력해왔으며, 구조가 아쉽다고 하였지만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는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논의를 하는 시간을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의결없이 논의가 진행되는 회의에 부정적인게 아니고 진행하더라도 구조적인 얘기가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논의만 진행한 후 다음 등심위에서 의결을 하면 의미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고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기획처장의 학생요구안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발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연세대, 성균관대 등 타 대학 대비 낮은 등록금 환원율을 제시하고, 등심위 3분의 2 이상 참석시 개최 또는 회의에서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는 등의 구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을 언급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작년에도 동일한 논의가 있었는데 등심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개의를 대한 재적위원 출석수 등을 대학이 정할 수는 없다고 언급하고, 참석위원의 구성은 학교규정을 바꾸는 것인데 그건 등심위 내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생각하고, 정해진 규칙을 넘어서서 구조를 바꿀 수는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고등교육법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민주적인 구성

을 위해 논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서면 외 메일로 회의자료 송부, 2~3일 전 송부 등 다양한 요구가 있으며, 학칙을 바꾸더라도 올바른 등심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위원회의 출석과 의결 정족수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는데 바꿀 수 있다고 하며, 등록금심의위원회 내규 6조 마지막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 법령을 따른다고 되어 있고 4조 3항에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논의를 통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동결안에 대해 자료 작성시 확고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동결을 상정하고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야 하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등록금 인상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서 오늘의 안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으므로 질의가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부속병원 관계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남은 안건을 마무리하고 부속병원 안건을 진행할지, 부속병원 안건을 먼저 진행한 후 남은 안건을 마무리할지 의견을 구하다.

- 경영대학 공동대표가 부속병원 안건 의결 후 다시 논의를 진행해도 되는지 질의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 안건 의결 후 질의응답과 의결을 재개할 수 있다고 답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2025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시간이 지체되어 회의 지속이 어려워 안정적 시간에 예산안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오늘 부속병원 안건을 의결하고 2차 등심위에서 1차 등심위 남은 안건과 2차 등심위 안건 중 학부 등록금 책정을 제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동일하게 발언하고, 변동되는 내용에 대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등록금 책정안 중 학부 등록금 책정과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분리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의결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2차 등심위에서 1차 등심위 안건인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4. 기금용도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12인이 찬성하여 2차 등심위에서 1차 등심위 안건인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4. 기금용도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의결하다.

- 위원장이 2차 등심위에서 학부 등록금(안)과 대학원 등록금(안)을 분리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한 의결을 제안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해당 안건의 취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2차 등심위 일정과 예정된 등록금 동결안을 파기할 정도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발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학부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을 분리하여 따로 의결해야 하는 구체적 배경 설명이 제시되어야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납득을 한 후 발의에 동의하고 의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 회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 분리 의결에 대해 2차 등심위에서 해설을 진행한 후 의결을 하는 것을 제안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과 대학원 등록금 분리 의결도 2차 등심위에서 진행하겠다고 알리다.

- 위원장이 2024학년도 부속병원회계 추경예산(안) 및 2025학년도 예산(안) 심의를 제안하여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전략기획팀장, 예산파트장이 배석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료원 및 양 병원에 대해 차례로 보고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서울, 목동병원 모두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고 학교 대상 부채가 많다고 들었는데 부채 상환 계획과 학교 전출금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매년 215억원씩 갚아나가고 10년 후에는 금액이 줄어들어 2043년에 상환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답변하고, 미전출금은 목동병원 사정이 좋지 않은 시기에 발생을 했었고 2023년부터 상환을 시작하여 계획대로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과대학 휴학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다.

- 전략기획본부장이 학교가 아닌 병원 보직을 맡고 있으며, 의과대학교수로서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3월부터 복학을 해야 하는데 학장과 학생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어 불확실하다고 답변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이어 2025학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하다.

-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 2025학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다.

- 외부전문가위원이 이월금에서 결손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유를 질의하다.

- 전략기획팀장이 서울병원은 지원금 감소, 목동병원은 공사 예정임을 알리고, 이월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관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장이 추가질의가 없는지 확인하고, 부속병원회계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24학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다.

- 이어, 위원장이 부속병원회계의 2025학년도 예산(안)의 의결을 제안하다. 교무처장, 기획처장, 예산팀장, 학생처장, 총무처장, 관리처장, 외부전문가위원 총 7인이 찬성하고, 학부 총학생회장, 학부 부총학생회장, 경영대학 공동대표,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 총 5인이 반대하여 부속병원회계의 2025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다.

- 기획처장이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관련하여 의결을 진행 중

이였으며 7인의 찬성 의사 표명이 있었던 상황이므로 규정상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이루어진 바 내일 의결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다만 찬성하지 않은 위원들의 반대, 기권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이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요청한 바 있으니 질의응답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건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2차 등심위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의결이 끝난 건이라고 답변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그건 번복이라고 보이며, 아까 심의도중 갑자기 위원장이 의결을 진행한 것이어서 의결을 중단시킨 것이며, 이미 2차 등심위에서 심의·의결하자는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찬성 인원이 과반수를 넘었었기 때문에 절차상 맞다고 보인다고 설명하고, 질의응답 때문에 그 안건을 2차 등심위로 연기한 것인데 부속병원 안건 진행이 빠르게 종료되어 지금 질의응답할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에 기반한 예산안은 의결할 수 없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해당 안건에 대해 미찬성 위원들의 의사 표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차상 이미 2차 등심위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한 걸 따르는게 더 정확해 보이며, 찬성 위원이 7명이었지만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다.

- 기획처장이 아까 위원장이 절차가 끝났다고 했던 것은 본인이 표결 절차가 끝난 것을 절차가 끝난 것으로 잘못 전달한 바 있으며, 2025학년도 예산(안)은 학부 등록금 인상이 아닌 동결을 가정하고 편성되었으므로 해당 안건은 지금 마무리하여도 무관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학부/대학원 등록금 책정안 의결을 나눠서 진행하자고 하였는데 오늘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고 학부 등록금 책정안도 동결로 의결하면 찬성하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예산팀장 발언과 같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기는 무리이고 2025학년도 예산(안) 변동시에는 추경예산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된 안건에 대한 번복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현재 예산안이 등록금 동결을 가정하고 편성되었고 등록금 인상은 추경예산에서 반영한다고 하였지만, 아까 예산팀장 발언시 등록금 인상 효과와 의대 휴학 효과가 어느 정도 상쇄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결국 다른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의결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발언하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건 등록금 동결 기반의 2025학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것이면, 등록금 동결도 함께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하다.

- 예산팀장이 등록금 수입 관련하여 의대 휴학을 약간 높이고 학부 등록금 인상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 작업은 10월부터 진행이 되니, 4월 등심위 또는 학생처 협의체를 통해 우선시되는 내용을 추려서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면 되고, 2차에서 진행되었어야 할 등록금 책정안 논의를 하느라 오늘 안건인 예산안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시간이 부족하면 의결을 진행한 후 질의응답을 내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갑자기 인성인을 가져와서 시간을 지체하게 한 것은 학교측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오늘 예산안 의결 진행하고 등록금 책정안도 동결로 의결 진행하기를 요청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아까 전원 찬성하여 의결된 내용을 논의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아까 위원장 질문에 답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며, 학생위원들이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대교수로서 잘못 진행된 절차를 바로잡고 싶은 것이라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고 회의 체계를 망친 것에 대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의결사항대로 2차 등심위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스크랜튼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이 효력 관련 일부 이해는 하지만 의결 절차 관련 위원장이 찬성 측 거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찬성인원을 세는 등 학생위원측도 제기할 부분이 많으므로 절차 관련 얘기는 그만하기로 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아까 위원장에게 위원들이 정확하게 손을 들어 찬성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 다시 찬성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결과 관련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확인이 되어 의결 효력이 있는 것이지만 반대나 기권에 대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절차까지 질의 응답으로 이어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었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언론에 이대 등록금 동결 기사가 많은데 갑자기 인상안을 낸 이유를 아직 제대로 답변 듣지 못했고 2차 등심위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할 때 대학 재정 구조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법인 관계자도 배석하여 우리 대학 재정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싶다고 발언하며, 내규상 전문가 배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요청드린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내규 5조 6항에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학교 재정은 법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인 관계자 배석을 요청드린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본인의 판단으로는 우리 법인이 다른 학교와 달리 순수 재단이고 법인 관계자를 관련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등록금 인상이 재정을 이유로 하기 때문에 재정난을 타개할 관계자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등록금 인상을 하는 건 납득이 가지 않으며, 대학 재정난 해결을 위해 기부 부서, 법인, 학교 수입 관련 업무 담당 등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논의하고 그 후 등록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우리 법인의 규모 차이가 있을 뿐 법인이 재정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우리 법인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이 아니며, 돈을 출연한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전문가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물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기부 관련자 배석 등 요구를 들어주어야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기부를 모금하는 분들을 모셔서 어떻게 하겠냐를 듣는 자리는 아닐 것 같고, 학교 수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떤 의미인지도 명확치 않은

민

장기

반

이

36

36

데 그러한 내용도 예산팀이 수합하여 답변을 하는 것인데 담당 부서 모든 처장을 불러 얘기를 듣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위원장으로서는 판단이 된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법인이 전입금으로 학교 재정을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며, 법인에서 학교와 소통하시는 한 분만 오셔서 현재의 전입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의하고 싶은 것이라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회신한 요청자료로 부족한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법인 관련한 내용 요청자료에 있어 법인에 요청하여 설명하는 내용을 자료로 받아 제공한 것인데 왜 굳이 출석을 원하는지 질의하다.

- 예산팀장이 매년 법인에 더 많은 전출 요청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비슷한 요청을 하여 본 자료로 설명을 하였고 올해에도 요청하여 다시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법인기금운용심의회 등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이런 상황에 대해 언급을 하므로 법인도 상황을 이해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며, 법인은 각 설치학교와 의료원까지 함께 고려하여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당장 2차 등심위가 내일인데 일정을 쉽게 확정하기는 어렵고 제공받은 본 자료를 참고하는 건 어떠냐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다음 날이 일정상 어려운 것인지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으며, 자료와 관련하여 여기 적힌 수치를 보는 것보다 이걸 보면서 논의를 하는 게 원활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번쯤 요청드리는 게 어려운 것인지, 어렵다면 학교에서 꺼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다.

- 기획처장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이어서 그런 것이며, 전문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다.

- 학생처장이 학생위원들이 또 요청하는 곳이 대외협력처를 의미하고, 어떻게 기부 업무를 진행하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대외협력처와 질의응답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조형예술대학 공동대표가 외부에서 모시는 분들의 경우 개인의 일정에 따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요청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기부금 관련하여서는 대외협력처 담당 인원을 확인하여

일정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대외협력처 배석도 필요하지만 법인을 대변하는 분이 배석하는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법인은 학교의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 법적 책무성이 있는데 법인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해야 할 정도로 학교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번쯤 참석하여 법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학생측과 토론하여 학교 재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내일 당장은 모르겠지만 확인해보겠다고 답변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교 수입이 여러 부서, 여러 기관과 얽혀있으니 관련 인원들에게 배석 요청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다.

- 기획처장이 다른 기관이어서 일정을 확정할 순 없지만 전달은 하겠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다른 의견이 없으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겠다고 하고 내일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됨을 알리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2차 등심위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하다.

- 위원장이 1차 등심위에서 의결을 거쳐 2차 등심위로 진행되는 2. 2025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안), 3.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4. 기금용도 변경(안)을 언급하고, 2차 등심위 안건인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을 언급하다.

- 예산팀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수업료/입학금실비용/계절학기 등 세부적으로 인상되는 부분과 변동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 등심위에서 처리하지만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안건은 기존 계열을 유지하는 정도여서 내일 함께 처리해도 무방하다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기 송부 자료에 있는 자연과학대학, 호크마교양대학 등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확인하다.

- 예산팀장이 맞으며 2차 등심위 기존 안건 중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신설학부/학과 등록금 책정안은 예산안과 함께 진행하자고 발언하다.

- 학부 총학생회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안을 미룰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도 2차 등심위에서 의결을 하는게 맞는지 확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내일 회의에서 학부 등록금 책정과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회차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하는 바이고, 배

경 설명/발의/의결까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다.

- 위원장이 학부 등록금 책정과 대학원 등록금 책정을 분리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을 하자는 것인지 확인하다.

- 학부 부총학생회장이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학부 등록금 책정안
안건 분리에 대해 발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고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과 학부
등록금 책정안 처리 일자 분리를 의결하고 대학원 등록금 책정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다.

01

반

22

■ 폐회

- 위원장이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하다.

위의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함

2025년 1월 7일

확 인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원장	이명희	이명희	위 원	송수진	송수진
위 원	김수민	김수민	위 원	왕혜정	왕혜정
위 원	도재형	도재형	위 원	윤정원	윤정원
위 원	반지민	반지민	위 원	이다연	이다연
위 원	백은미	백은미	위 원	이주연	이주연
위 원	서유리	불참	위 원	정덕유	정덕유
위 원	석지우	석지우			

작 성 자

예산팀 김민중 김민중